

예배와 심이 있는

2016 전교인 여름수련회

가리길 리미길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7월 3일(주) - 7월 5일(화)
HUDSON VALLEY RESORT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퀸즈장로교회

아가페 agape



KOREAN

ENGLISH

CHINESE

RUSSIAN

KAPCQ

Flushing Vision

2016.6

월간 아가페 제388호 · 2016년 6월호 발행 |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 886-4040, 4347 Fax : 718) 358-7789



담임 김성국 목사
Rev. Seoung Kook Kim
金星局牧师

그대, 세 단어를 가졌는가?

윌리엄 보든은 미국의 부요한 가정에 태어나 예일대학과 프리스턴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그는 중국 선교사를 꿈꾸며 준비하다가 25세의 나이에 천국으로 떠나갔습니다. 그의 짧은 생애를 위대하게 만든 세 단어가 있습니다. 남김없이 (No Reserves) 후퇴없이 (No Retreats) 후회없이 (No Regrets)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베냐민지파 출신으로 가말리엘문하생이었고 로마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세 단어가 있었습니다. 믿음 (信) 소망 (望) 사랑 (愛) 그의 생애는 더할 나위 없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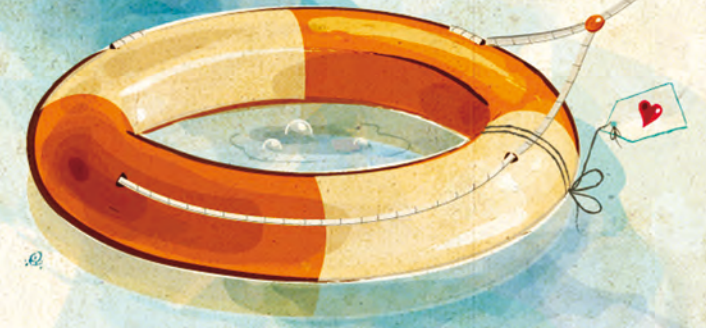
문학 지망생이 강의를 듣다가 “시를 잘 쓰려면 식물의 이름을 잘 알아야 한다” 는 시인 교수님의 말을 듣고 풀꽃나무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다가 아예 그것에 심취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풀 꽃 나무 이 셋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삶 전부이다시피 하지요.

당신의 삶을 지탱해줄 세 단어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겠습니까? 이 여름에 그것을 확인하고 붙잡아야 가을도 겨울도 넉넉히 지날 것 같습니다.

저의 세 단어는 무엇이나고요? 위의 사람들은 그 단어가 다 삶이 되었는데 저의 세 단어는 전혀 삶이 되지 못하고 있어 꺼내 놓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일편단심, 일사각오, 그리고 복음전파인데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권장에서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Jesus
s a v e s

2016년 5월 새가족 안내



이철명
2-Y-2 / 청년2



김송옥
4-F6-3 / 안나



전위홍
2-F3-2 / 마리아



마옌화
2-F3-1 / 브리스가



김명숙
1-F7-3 / 마르다



조미영
4-GN-1 / 브리스가
이재용(고등)



박인호·박설아
3-Y-2 / 청년2



조선제·이사강
2-F13-1 / 바울·마리아
조사본(고등), 조아라(초등), 조홍래(유년)



이보경
3-Y-2 / 청년2



김항수
3-B5-3 / 아굴라



김원길
1-F-2 / 바울



이인철·권길자
4-F5-2 / 여호수아·루디아



안중희
3-RW-3 / 사라



장원석
2-Y-1 / 청년1



채봉일
2-F3-3 / 요한
허수연(다비다), 채지영(유년)



한영덕
2-F13-2 / 에스더



장사라
1-NJ2-1 / 다비다



장경희
3-B1-1 / 브리스가

새가족 환영회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지하 친교실**에서 교우들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식사와 함께, 새가족 여러분의 교회 정착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Do You Have Three Words To Live By?

William Borden was born from a wealthy family and graduated from Princeton Seminary. He died at the young age of 25, whilst preparing himself to become a missionary in China.

Though, short-lived his life was one of greatness. There are three phrases that William Borden lived by that were instrumental to his living a great life,

No Reserves | No Retreats | No Regrets

Reserve, Retreat, Regret, William Borden lived a life of great service to the Lord based off of these three words.

The Apostle Paul was a member of the tribe of Benjamin, was a student under the acclaimed teacher Gamaliel, and had the advantage of living life as a citizen of the Roman Empire.

He lived his whole life preaching the gospel, and he ended his life in Rome, martyred for his faith in Jesus Christ.

He too lived by three words, These were the three words important to him:

Faith | Hope | Love

There is no doubt that the life that the Apostle Paul lived was one not of doubt, but of faith, not of fear, but of hope, and not of hatred, but of love.

There was another man who dedicated his entire life to the purpose of finding out the names of all the grass, flowers, and the trees that were around him. He was inspired to this task while listening to a lecture on poetry, the lecturer told his hearer, that if a person wanted to write great poetry, they must have great knowledge over the names of the various kinds of grass, flowers, and trees that surrounded them. This man too, lived by three words:

Grass | Flower | Tree

These three were his everything.
What are the three words that sustain your life?

If we find that we have none, we must endeavor to find out what those three words might be, and to grasp it tightly that we might be sustained through to the rest of this year.

If someone were to ask me what three words are most important to me, I must admit that I am reluctant to share such information. Because, unlike these three men who were able to devote and base their whole lives based on their three words, I do not feel as though I have been able to do the same. However, the three words most important to me that I hope to live my life based on are:

Heart | Determination | Gospel

I want to live this life with an undivided heart to the Lord, with an undivided determination to His will, and to constantly live a life that preaches the gospel.

你有没有三个字伴随着你人生？

威廉·波頓出生于一个富裕的家庭。他毕业于普林斯顿神学院。他在预备自己成为中国宣教士的时候过世，享年25岁。虽然他的生命很短暂，但却伟大。威廉·波頓的人生中有三个词伴随着他，主导着他过一个伟大的人生：

不保留 | 不退缩 | 不后悔

保留、退缩、后悔—威廉·波頓在事奉主的一生中远离这三个词。

使徒保罗是便雅悯支派的人，是受人敬仰的教法师迦玛列的学生，是一个拥有不错的生活的罗马公民。

他一生中都在传讲福音，也在罗马结束了他的生命，因信奉耶稣基督而殉道。他同样也以三个字而活，这是对他来说很重要的三个字：信、望、爱。无可置疑的，保罗生命中没有怀疑，只有信心。没有惧怕，只有盼望。没有恨，只有爱。

又有一个人，一生都是在寻找自己身边的花草树木的名字。他是在聆听诗词课的时候所得到的启发。讲员告诉他的听者，若一个人想要写好诗，他必须知道自己身边诸多的花草树木的名字。这个人同样的也活在三个字里：花、草、树木。这三样是他的全部。

在你的生命里是哪三个字呢？

如果我们发现我们一样都没有，我们必须努力的去寻找那三个字是什么，然后一生中都将它们紧紧的抓住。

若有人问我生命中哪三个字最重要，我必须承认，我不是很想让大家都知道。因为，不像这三个人，他们终生都委身于他们的三个字。我觉得我并不如他们一样。无论如何，我盼望我生命活着基于：全心、坚定、福音。我要全心的为主而活，坚定的活在祂的旨意里，和一生都传扬福音。

교회 행사

목차

6월

- 4일(토) 선교 바자회
- 8일(수) 아가페 유치원 헌신예배
- 11일(토) 중등부 'Rise Up and Build (RUB)'
- 12일(주) 52회 전도폭발 수료예배 및 D. James Kennedy Award 수상식
- 13일(월)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27회 졸업예배 및 학위 수여식
- 15일(수) 한나 선교회 헌신예배
- 19일(주) 뵤뵤 선교회 헌신예배
- 22일(수) 바울 선교회 헌신예배
- 24일(금) '나라 사랑 평화 음악회'
- 극동방송 창사 60주년 기념 음악회 장소: 카네기 홀
- 26일(주) 교육부 졸업예배
- 29일(수) 원로목사회 정기모임
-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7월

- 3일(주)-5(화) 전교인가족수련회
- 5(화)-8/19(금) 7주간 2016년 여름학교
- 아가페 유치원여름학교
- 6일(수) 지도원성경공부
- 8일(금) 구역예배
- 10일(주) 선교회 헌신예배
- 15일-17일(주) 할렐루야 2016
- 대 뉴욕 복음화 대회 장소: 프리미스교회

- 2 신양시론 - 그대 세 단어를 가졌는가? /김성국 목사
- 5 시 - 갈림길 /김성국 목사
- 6 담임목사 설교요약
- 8 어버이 주일 간증 /김가람 학생
- 10 제자, 영성훈련 수료예배 /김유진 청년
- 11 영성훈련 수료자 간증 /조인범 집사
- 12 효도관광 /김영오 장로
- 14 50대 선교회의 밤
- 17 청년부 전도 집회 /청년1부 도정욱 청년
- 18 전교인 한마음 축제 /남위홍 청년
- 20 화보 - 전교인 한마음 축제
- 22 플러싱 선언문 - 우리가 플러싱에 사는 이유
- 25 러시아어 예배 설립예배 /송요한 목사
- 28 선교바자 -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한 기쁨의 잔치
- 30 G2G - 부모님과 찬양을 /부모님의 글
- 32 어머니날 야유회를 다녀오며 /Grace Xiang
- 34 중등부 순결 서약 예식 /유영선 집사
- 36 유아부 -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 /베치 장
- 지민이의 유아부 예배 /이복임 집사
- 38 은혜의 심방-멀리서 가까이서 교회를 향하여 /함미희 전도사
- 39 5월 등록 새가족 안내



갈림길

아브라함 앞의 갈림길
가나안과 하란
순종으로 걸은 가나안길
믿음의 조상 길이었네

요나 앞의 갈림길
다시스와 니느웨
거역으로 걸은 다시스길
풍랑의 심판 길이었네

예수님 앞의 갈림길
십자가와 자기 뜻
사랑으로 걸은 십자가길
인류의 생명 길이었네

내 앞의 갈림길
순종과 불순종
어느 길에서 주님이 날 반겨주실까
나 주님 기다리시는 그 길을 걸으리라

- 김성국 목사

5월 담임목사 설교 요약

5월 8일 주일 설교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디모테전서 5장 4절

부모님에게 보답(먼저 받은 것에 다시 갚아드린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부모님은 자녀를 눈물로 키우셨다. 불효자 압살롬의 죽음에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하며 다윗은 눈물 흘리며 애통해 했다. (삼하 18:32-33)

부모는 자녀에게 다른 세계를 보여 주기 위해 희생하며 애쓴다. 모세의 부모는 생명을 걸고 모세에게 다른 세계를 보여주었다 (히 11:23-26).

부모에게 어떻게 보답하여야 하는가?

1. 물질로 보답하라

예수님은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막 7:10-13).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아버지 야곱을 기운이 소생하도록 물질로 모셨다(창 45:23-27).

부모님 기운을 소생시킬 수레가 필요하다.

2. 기쁨으로 보답하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한다(잠 23:25).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을 해 드림으로 기쁨이 되셨다.

사랑과 정성 그리고 따사로운 정감을 느끼도록 해 드려야 한다.

3. 믿음으로 보답하라

‘집에서 효를 행하는 것’의 영어성경에는 ‘경건하라’ ‘친절하라’ ‘책임을 다하라’라고 표현한 외에 ‘약속을 지키라’라고 서술되어 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키는 믿음은 지키는 것이다. 믿음 생활 잘하라.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이다.

5월 15일 주일 설교

롤로코스트를 탄 왕

다니엘 2장 46절-3장 7절

본문에 느브갓네살 왕은 정신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놀이기구 롤로코스트를 탄 사람과 같다.

1. 왕은 상황에 따라 롤로코스트를 탔다

단 2:47에서 느브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칭송한다. 그러나 3:1에서는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높인다. 또한 3:28-29에서 다시 왕은 하나님을 높인다. 그러나 4:28-30에서는 자기를 높이다 37절에서 다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 상황에 따라 신앙이 변하며 중심이 바뀌며 오르락 내리락 한다. 신앙생활은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면 안된다. 천국은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이며 심지가 견고한 자들과 신뢰하는 자들의 나라이다.

2. 왕은 말과 마음이 다른 롤로코스트를 탔다

2장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느브갓네살 왕의 말은 번듯했으나 바로 3장에서 금신상을 평지에 세웠다.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고 자신을 금 머리라고 해석한 꿈(단 2:38)을 늘 마음에 두고 실행한 것이다. 말과 마음이 다른 사람이었다.

가롯 유다도 (마 26:47-49)입은 부드러웠으나 마음은 흉악한 자로 말과 마음이 달라 실패한다.

다윗은 시19:14에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했다.

3. 진정한 왕은 롤로코스트를 타지 않으신다

세상의 왕과 달리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분이다(히 13:8).

다니엘은 언제나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단 2:46-47).

예수님은 언제나 그의 행하신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빌 2:10-11).

5월 담임목사 설교 요약

5월 22일 주일 설교

맹렬히 타는 풀무불

다니엘 3장 8절-18절

풀무불은 죽음의 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헤롯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를 마귀는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으로 찾아왔다.

참소(단 3:8-갈대아 사람들의 참소), 분노(단 3:13a-노하고 분하여), 폭력(단 3:13b- 끌고 옴), 회유(단 3:15a-이제라도..준비하였다가),소리(단 3:15b-소리에 기우는 자), 시간(단 3:15c-즉시), 조롱(단 3:15d) 등이 원수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다양한 방법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진정한 믿음의 태도는

1. 무시했다 (:16)

진정한 믿음은 외부의 험박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 즉 평강이다(마 8:24-26). 평강의 믿음으로 세상의 온갖 험박과 회유와 조롱을 무시하라

2. 확신했다 (:17)

구원이 태양이면 확신은 햇살이다. 햇살이 있는 밝은 자로 확신에 찬 사람이었다.

3. 맡겼다(:18)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믿고 맡기는 것이 신앙이다.

우리가 어려울 때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도 임재하시며 이는 유익을 위함이다(요 11:4-6 나사로의 죽음 앞에 지체하셨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은 훈련하시기 위하여 침묵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침묵은 기쁨일 때가 있다(스테반의 죽음 앞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어나 기뻐하시며 환영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은 죽음 너머에도 있다.

가장 높은 차원의 믿음은‘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감사하며 사랑하고 충성하고 예배하는 믿음이다(롬 8:38-39).

5월 29일 주일 설교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다니엘 3장 19절-30절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불 가운데에는 네 사람이 있었다. 그들과 함께 계셨던 분은 예수님이셨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

1.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세 친구가 신앙을 지키려 당하는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하셨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중 신앙을 지키려고 받는 고난 가운데 오셔서 지켜주신다.

죄에서 오는 고난이 있다. 그곳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며 책망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간음현장에서 잡혀 곤욕을 치르는 여인)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 받는 고난 중에도 예수님은 함께 계시며 깨우쳐주시고 감싸 주신다(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여 설명이 없으시지만 성장시켜 주신다 (욥의 고난-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으셨으나 욥에게는 설명이 없었다).

2. 결박을 풀어주시는 예수님

세 친구의 결박을 먼저 푸셨다(단 3:25). 우리의 많은 결박(죽음, 죄, 마귀, 불평, 흉악, 미움, 게으름, 더러운 습관, 재경, 건강, 사상, 상처의 결박 등등)에서 벗어나야한다. 묶여있던 실체를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 우리 결박 안에 잠재된 실체는 “큰 용사”(삿 6:11-12 기드온은 두려움의 결박에서 벗어나 큰 용사의 삶을 살았다)이다.

3. 놀라운 반전을 주시는 예수님

불 자체가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니나 예수님의 임재로 죽으라고 던져진 풀무불에서 살아나왔다. 28절에서 느브갓네살 왕이 변화되는 반전이 되어 30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너의 하나님’으로 남아, 진정 영접하지 못하였다.

진정한 믿음은 분명한 선택이다.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김가람 학생

엄마,

엄마한테 편지를 쓸 기회가 주어져서, 엄마가 제 엄마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해주고 싶었어요.

우선 엄마한테 감사한건, 저랑 지명이가 항상 말썽만 부리고 엄마를 화나게 해도, 우리를 항상 사랑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말을 듣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해 주는거예요. 엄마가 우리에게 음식 먹은후에는 꼭 설거지하고, 고양이 번기는 깨끗이 하라고 말씀 하시지만 우리는 하지 않고, 결국에 엄마가 하루종일 일하시고 돌아와서 하셔야 함에도, 엄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음 기회를 주시죠.

또 감사한건 무슨일이 있어도 엄마는 항상 제 편이라는 거예요. 제가 힘든 시간을 갖고 있을때, 엄마는 항상 제 곁에 계셔서 의지할수 있었고, 말동무가 되어주셨고, 특별히 저는 엄마가 저에게 대학교로 가기를 원한다는걸 알고 있었지만, 제가 군대를 가기로 결정 했을 때, 엄마는 끝내 제편에서주셔서 제 결정에 동의 해 주셔서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감사하고 싶은건, 엄마가 항상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도와주시려 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때 큐티도하고 성경구절을 외우던것을 기억해요. 하지만 저는 항상 불평만 했고 어떻게든 안하려고 했지요. 그땐 다 시간낭비라고 생각되었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것만으로 충분 하다고 생각 했었어요. 하지만 그때 엄마가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저를 위해서 였다는것을 이제서야 이해가 돼요.

11학년 때, 다들 SAT로 바쁘고,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 있을 때, 저 역시 제 미래에 대해, 그리고 제가 무얼 하고 싶은지에 대해 염려하던 때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많은 충고와 조언들을 주었지만, 그런 충고들은 저한테 오히려 더 부담이 되기만 했고, 오히려 제가 가야 할 길, 제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게만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충고들 대신, 해결책이 기도임을 깨달았어요. 그때는 몰랐지만,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엄마가 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어릴때부터 가르쳐 주셨고, 제가 하기 싫었을 때에도 성경 읽는것과 성경구절 암송하는것을 항상 확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도 성경을 매일 읽지는 않지만, 가끔 친구들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슨일이 있어도 가장 중요해야 한다고 얘기를 마칠때가 많아요. 그렇게 배우고 자라와서, 그렇게 이야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저를 위해서 해준 모든 것들에 대해 고맙고, 저를 위해 해주실 것들에 대해서도 고마워요.

사랑해요.





"범사에 유익한 경건의 훈련"

김유진 청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딤후4:8)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멀리서나마 따라가며 그 주님의 겸손과 사랑과 희생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가르쳐주신 제자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고자 소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14주간의 강훈련을 마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 섰습니다.

피곤하고 바쁜 일상생활에서 졸음과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며 말씀 읽기, 기도 훈련, 요절 암송, 영성 일기, QT, 공동체 훈련 그리고 필독도서 독후감 등의 모든 과정을 끝낸 30명의 제자 훈련 수료자와 25명의 영성 훈련 수료자를 위한 제5기 제자 훈련, 제3기 영성 훈련 수료 예배가 5월 22일 주일 저녁 예배때 드려졌습니다.

"LK640"(눅6:40)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공동체나 교회에는 이야기가 있으니 곧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이며,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가르쳐준 자의 권위를 지켜주고 도전하지 말며 Leader는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낮은 곳에 있어야 하며, 바로 예수님의 leadership-자기를 낮추시고 부인하시며 종이 되신 섬김의 모습을 따라가야 하며, 제자는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성품을 배우되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자 훈련 수료자 30명과 영성 훈련 수료자 25명이 각각 수료증을 받은 후 22개의 요절 암송, 간증, 특송을 했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으니 곧 성도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담임목사님의 열정적인 강의와 기도, staff들의 사랑의 수고 그리고 훈련생들의 주님을 닮고 싶은 열망과 노력이 함께 빛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훈련 과정은 한 단계씩 끝났지만 그 다음 단계가 또 이어질 것이며, 그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고 매일 매일의 삶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또한 아직도 이 복되고 귀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신 많은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제 3기 영성 훈련생 조인범

지난 3개월 간 영성훈련을 무사히 마치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모태신앙이면서도 중학교 시절부터 군대까지 거의 10년 동안 신앙생활은 물론 종교생활도 하지 않던 저는 공항에서 픽업해 주신 분의 생활 패턴에 의해 퀸즈장로교회로 인도되었습니다. 타의에 의해 시작된, 말 그대로 나의 종교생활은 성경 말씀, 목사님 말씀, 선배님들 말씀을 들으며 차츰 신앙생활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작년 가을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교육 일정 가운데 하나인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으니,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변화 시킬것"이란 믿음의 확신과 기도제목은 주시며 영성훈련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제자훈련을 끝마칠 때 쯤 성경을 제대로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새기면서 제대로 읽겠다는 다짐을 하며 영성훈련의 숙제 리스트를 보니 내 생각과는 다른 스피디한 성경 통독 숙제를 요구하는 교육과정이라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영성훈련과 함께 시작된 사순절 첫날, '자기를 부인하자'란 기도제목으로 기도 하는 중 하염없이 눈물만 나면서 "넌 흑암이야 그 위에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오셔서 너를 빛으로 이끌 것이니 그냥 네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듣고 순종하라" 라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후 목사님의 배려로 갖는 잠깐의 휴식시간, 영성훈련 시간, 그 안에서의 교제시간. 그리고 주어지는 매일 매일의 기도와 숙제 등이 힘들었지만 말씀을 더욱 더 읽고 묵상 할 수 밖에 없는 훈련들을 통해, 허락하신 삶 가운데 빛으로 가는 또 하나의 은혜의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성훈련 동안에 교재 중 한 과를 나누거나 묵상할 때에 다른 과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나온다는 것에 이 모든 과들이 결국 하나라는 것과 또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은혜가 함께 있는 풍성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삼위가 하나고 하나가 삼위 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성에 대해 깨어 알고 느낄 수 있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지적인 영성에 속한 성품이었으나 다른 분의 영성 발표시간을 들으면서 결국 이러한 개개인의 영성들이 모여서 주의 심장을 가진 하나의 교회(빛)를 이루는 것임을 알게 되며, 한 지체를 감히 판단하지 말고, 그 각각의 지체를 교회로 보고 섬겨야 한다는 시각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주어 질 다음의 은혜 징검다리가 기대가 됩니다. 그것이 훈련이 될지, 말씀이 될지, 기도가 될지, 찬양이 될지, 나눔이 될지, 교육이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길을 순종하며 묵묵히 따르겠습니다.



아브라함 선교회 회장
김 영 오 장로

값을 수 없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녀들이 주선하여 관광을 보내주는 것이 효도관광인데 우리교회는 젊은 선교회 회원들의 주관으로 나이 많으신 성도님을 초청하여 효도관광을 실시한 것이 근 20여년 이상의 전통이 되어 금년도에도 예외없이 효도관광 광고를 지난 4월 첫 주보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행선지는 Bethpage State Park 이고 참가 대상은 71세 이상의 교회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이니 아론 선교회, 아브라함 선교회, 사라 선교회 그리고 안나 선교회 회원들 일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 산천초목이 푸르게 변화여 새 싹과 새 잎이 나오는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의 달 5월에 교회가 가정과 같이 하나가 되어 젊은 선교회 바울 선교회를 포함하여 15개 젊은 선교회 회원들이 나이 많은 회원들을 효도관광에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효도관광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 16일 월요일 8시 30분에 교회 친교실에 모여 각 회원들의 인원 점검과 명찰을 배부 받았으며 또한 간단한 아침식사와 물을 받아 아침식사를 대신하였습니다.

현재 바울선교회 회장으로 봉사하시는 최원일 집사님의 기도 후에 교회 밴 13대에 분승하여 Bethpage State Park으로 출발하였습니다.

Bethpage State Park은 전에 유명한 GOLF 대회로 U.S OPEN GOLF 대회가 열린 곳으로 GOLF COURSE 5 개가 한 곳에 있는 뉴욕 주가 운영하고 있는 PARK이며 산천초목이 무성하여 경관이 아름답고 공기가 맑은 곳으로 매년 이곳으로 효도관광을 다녀 왔었습니다.

금년 효도관광에 참석한 인원은 모두 170여명 (봉사요원 포함) 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에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금년에는 중국어권 예배에 참석하시는 나이 많으신 회원들 여러분 참석하여 같이 하루를 보내게 되어 더욱 즐거웠고 감사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Bethpage State Park에 도착하여 10시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가 79장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세계) 을 부른 후에 허 경화 장로님의 기도로 시작하여 당회장 김 성국 목사님의 장수와 구원에 대한 설교 말씀은 여러 회원들의 가슴에 큰 감명을 주신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91편 16절 말씀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는 성경말씀에 모든 회원들이 하나님께서 장수와 건강 및 믿음의 복을 주셔서 금년도도 효도관광에 참여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렸습니다.

정사용 집사님의 광고시간에는 94세 되신 양 복순 명예권사님에게 효도관광 장수상을 수여하였으며 또한 멀리 뉴저지에서 참석하신 이안식 장로님께서 원거리(장거리) 참석상을 받았습니다.

예배 후에는 불고기 바베큐 파티로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온 회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허 경천

장로님, 이 휘영 장로님 그리고 김만수 집사님등 몇몇 회원들과 같이 무성한 나무들 사이로 새소리를 들으며 자연을 감상하며 산책을 하다 문득 어느새 칠십 고회를 넘어 80을 바라보게 되었는지 시간의 무상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장수의 복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후 2시에 모든 회원이 푸른 잔디밭에 모여 즐거운 여가 시간과 여러가지 게임을 함께 가졌으며 모든 효도관광에 참석한 회원들이 원을 그려 손에 손을 잡고 사랑의 종소리를 부른 후 목사님의 축도로 효도 관광을 마치고 오후 4시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금년도 효도관광은 나의 젊은 선교회원 시절에 직접 효도관광을 준비하여 보았고 또한 지난 수년간 효도 관광에 참석했던 경험에 미루어보아 과거 어느때 보다도 잘 준비되었으며 즐겁고 아름답게 진행되어 효도관광을 받은 모든 회원들은 바울선교회 회원 및 14개 젊은선교회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상품이 너무나 풍성하여 각 회원이 2 개 이상의 기념품을 받아 기뻐하였으며 또한 교회에 돌아와서는 참기름 1 병과 유기구르3종 SETS 를 참석한 모든 회원들에게 주시어서 또한 감사를 드리며 즐거웠던 하루를 추억합니다.



50대 선교회의 밤



우리는 인생의 중심에 있는 50대입니다

인생의 반을 지나오면서 기쁜 일도 가슴 아픈 일도 모두 내가 안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줄 알았습니다. 때로는 힘에 겨워 넘어지면서도 책임을 다하려 버티며 내 힘으로 일어서려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중심에 있는 50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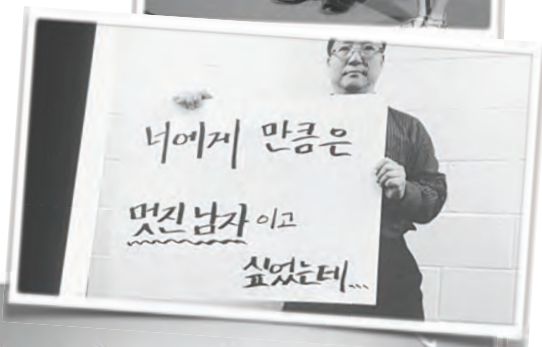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계실 곳으로 택하신 이곳의 중심에 있습니다.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을 하여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한 것일까 어떻게 성도를 위로할까 여러 생각에 가는 시간만 초조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셨고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대책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생각하며 초조할 때 하나님은 이미 기뻐 받으셨으며 우리가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은 후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교회 가운데 선 충성된 50대 선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두려울 것도 없고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니 용쓰며 버틸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더욱 기쁘게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교회의 중심입니다!



50대 선교회의 밤 스케치

5월 28일 초여름 토요일 밤 8시

1965년부터 1956년 생 50대의 마르다, 다비다, 베드로, 갈렙 선교회가 모여 50대 선교회의 밤을 본당에서 '우리가 중심이다'라는 주제로 성대히 가졌다.

1부는 예배로 경배와 찬양을 시작으로 차상남집사의 예배선언과 민미숙권사의 기도 그리고 김성국목사님의 '벌써와 아직'이란 제목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3절의 본문의 말씀을 주셨다. 우리의 생각의 발상의 변화로 새롭게 결단하고 더욱 충성하며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50대 전도회가 되기를 권면하시며 축도해 주심으로 1부를 마쳤다.

2부 콘서트 순서로는 박경우권사의 광고와 여선교회의 '그 시절 그 모습' 패션 쇼를 가졌다. 철부지 시절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갖는 계기가 되었다.

선교회 회원의 옛 사진을 모아 슬라이드 쇼가 시작되자 곳곳에서 탄성과 웃음으로 그 시절을 회상하며 변한 우리

들의 모습에 서로 공감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특별히 김성국목사님과 사모님의 풋풋한 모습의 연애시절 사진은 우리를 그 시절로 잠시 돌이켜 주기에 충분했다.

이정숙권사와 차상남집사의 축스러운 연애편지와 영상편지는 함께 공감하며 눈시울을 붉게 만들고 곧이어 부부중창의 세련된 화음은 여름밤을 업그레이드 시켜 놓았다.

마지막 크라이막스로 가진 뮤지컬로 선교의 사명을 다지며 전 선교회원들이 함께 어울려 찬양과 율동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2016년 들어 새롭게 선교회 활동을 나이 대 별로 모여 옛 모습을 회상해 보고 현주소를 다시 확인하며 우리가 경진해 나갈 방향을 모색하는 변화된 선교회 모습을 찾고자 기획된 것이다. 각 선교회에서 준비를 하고 연습하며 리허설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한지붕 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은 즐거운 행사였다.





아내의 편지

이정숙권사

따르릉~

28년 전, 저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낯설지만 한없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때는 오월, 신록은 온 대지로 번져가고, 주변은 봄 대학 축제 기간으로 '젊음이 죄다' 싶게 가슴 뛰며 요동치던 시절이었으니 마침 걸려온 그 남자로 부터의 전화와 데이트 신청은 밀당의 여운도 없이 이유 불문 OK 였죠.

그렇게 시작된 007미팅은 제비꽃 같은 여자와 오랑캐 같은 남자와의 새로운 전기를 써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바로 당신과 나의 이야기...

처음 우리 데이트 시절

시크하고 세련된 도회적 이미지만을 좋아하던 당신은 긴 생머리에 세미클래식 정장, 거기에 하이힐을 신은 내 모습이 마치 시골 국민학교 선생님 같이라며 놀렸었죠!

머리를 좀 잘라보면 어떻겠냐는 말에 난 즉시 남자 상고머리로 나타났고 좋다하던 당신이 또 제안하는 파마머리도 마다 않았죠 나도 당신이 그리도 좋았던걸까요!

이처럼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가 6개월 만에 웨딩마치를 울렸고 신혼의 단꿈과 동시에 서로를 맞추어 나가기 위한 마찰은 시작되었었죠. 방향, 목표, 가치, 기대치, 목적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린 또 꽤 오랜 시간 서로를 지적하며, 고치고, 바꾸려 하는데 힘을 쏟아야 했어요. 서로를 향한 빛나간 수고는 때로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가 다 감사하네요. 때로 틀린 방법으로 나아가며 지칠 때도 있었지만, 결코 서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결혼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잘 맞추어 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무엇보다 나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크리스천의 양심으로 살려 노력하며, 아들이 닮고 싶은 사람이란 고백을 듣게 해주고 늘 내 곁에 힘이 되어 줘서!

당신이 나를 지켰듯이, 이제는 내가 당신이 원할 때, 당신이 날 필요로 할 때, 당신만을 바라봐 줄게요.

아직까지도 내겐, 너무 좋은 당신, 화/이/팅!!

우리가 중심이다..

50대 선교의 밤을 끝내며

안진우 집사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외할아버님이 55세, 외할머님이 48세...전 어 느덧 그 당시의 외할머님 나이를 훌쩍 뛰어 넘었음에도 손주는 커녕 아직 말 배우고 있는 어린 아들을 두고 있네요. 옛날 50대는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를 들을 나이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중심이다'라고 외치는 깜찍 발랄(?)한 나이대로 변했습니다.

이번 50대 선교의 밤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았던 시대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을 겪고,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잘살아 보세'를 외치면서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OPEC 가입국으로 거듭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느라 일만 했던 가장 힘들었던 우리 윗 세대와 발전된 대한민국에서 부를 누리지만 옛 세대들과의 Generation Gap으로 고민해야 하는 아래 세대 사이에 끼어서 사실 과도기 적인 시대를 살아온 우리입니다.

이번 패션쇼 코너에서 보여 주었듯 우리 어릴적엔 장발과 미니 스커트 단속이 있었고, 대학때는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데모에 시달리던 혼란기의 세대였습니다. 지금은 K-POP이 세계적으로 유명해 졌지만 그 밑바탕이 되었던 대학 가요제와 대중가요 중흥기를 이끌었던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낭만이 있었고, 서정이 있었던 감성 풍부한 시대였습니다. '내가 아내다'와 '내가 남편이다' 코너에서 보았듯 아름다운 시적인 사랑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과거의 힘든 시절을 현재의 풍요로운 시대로 바꾸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7080 세대들로서 그때의 문화를 현재로 이끌고 와서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부 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과 깊이는 50대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성숙함이 녹아 있었습니다.

뮤지컬이 보여 주듯 이제는 50대로 접어들어 어쩌면 집에서는 상당히 외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보다는 가족을 돌봐야 하고, 장성해 가는 자식들과의 의사소통을 걱정해야 하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게 인생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힘들어'라고 얘기하기 전 '힘들어?'라고 물어봐 주는 친구가 필요한 나이입니다. 회사에서 치이고, 사회에서 치이고, 그걸 표현하기는 이제 아예 지쳐버리게 되고 말죠.

어렸을 때 막연히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 50대에 접어들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되는 나이 인 거 같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모든 번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나이에 와서야 눈이 트이게 되고 그렇다면 새로운 인생관을 정립하는 나이, 그리고 이걸 아래 세대에 알려주며 이끌어야 하는 우리는 중심인 것입니다.

이번 선교의 밤을 준비하면서 참가자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뭉쳐서 각자 맡은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걸 보면서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 가는 거 같아서 정말 보람되었습니다. 비록 어색한 울동이라도 열심히 찬송하는 모습 자체가 아름다웠습니다. 옛말에 50을 지천명 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 같습니다. '외로워'라는 말을 듣기 전에 먼저 '외로워?' 하고 다가가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의 능력을 배가 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청년부 전도집회

**지난 5월 15일 청년1부는 "Well Come Home Day (welcome home, well, come home, We'll come home 이라는 여러 의미가 담긴 이름)" 이라는 전도 초청집회를 열었습니다. 장결자와 새신자를 초청하고 교회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한 달여간 계속된 여러 가지 행사의 정점이 된 이 집회에는 비영리재단 M-Tree (겨자나무)의 최영환대표가 강사로 초대되어 꿈과 비전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질의문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청년1부 초청 집회의 강사로 섬겨 주셨던 최영환대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였습니다.

최영환대표님을 태초 전부터 사랑하셔서 어린시절, 일찍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인생 곳곳에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지금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최영환대표님을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영환대표님의 간증 결론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오른팔은 죽음조차도 영원히 멸하실 수 있다' 이었습니다. "out of boat", 베드로가 물위로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심 없이 배 밖으로 나와 잠시나마 물위를 걸었던 것처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환한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인생은 너무 짧기 때문에 쓸데없이 세상 것들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너무 짧아, 주안에서 형통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날이 겨우 한 뼘 길이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윗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에 불과 하다고 고백함으로



청년 1부 도정욱

써 오직 유일한 소망되시는 여호와를 끝까지 붙들으로써 인생의 끝을 장식하는 멋진 나그네의 길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잠시 지나가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 것에 집착하거나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려 놓는 것, 모든일의 해결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 지혜임을 최영환대표의 삶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영환대표님의 간증이 끝나고 문답시간 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대표님의 해결방안은 무엇이었나요?" 최영환대표님의 대답은 '교회' 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인들과 서로 슬픔과 기쁨을 나누며 예수님 안에서 교제를 아름답게 이루어간다면 유혹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탁월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퀸즈장로교회에 출석한 지 겨우 두 달 되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이곳 거룩한 성전을 너무나 사랑 하셔서 그분들의 처소로 삼으셨다는 것을 충만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 더 예수님의 사랑 가득한 교회가 되고 청년들의 꿈과 비전이 날마다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한마음 축제

새가족부 남위홍

올해로 세 번째 한마음 축제 운동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매년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었지만 이번 2016년 한마음축제는 그야말로 남다른 의미가 있었고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준 것 같습니다.

매년 한마음축제는 룽아이랜드에 있는 파크에서 열렸지만 날씨로 인하여 몇 번은 교회 주차장과 체육관에서 열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날씨관계로 교회에서 모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미리 준비한 음식을 이른 아침에 교회로 가지고 와서 각 구역별로 테이블을 세팅하며 음식준비를 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의 개회식을 알리는 말씀에 이어서 준비운동을 마친 모든 성도님들은 먼저 함께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축제음식에 빠질 수 없는 맛있는 갈비와 삼겹살 등 고기 굽는 일은 오로지 남자 집사님들의 몫이었습니다. 평소엔 잘 못하는 집안일을 이런 기회에 한꺼번에 만회하려는 듯 교회 곳곳에서 남자 집사님들이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며 연기를 피우며 고기 굽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한 날들이 너무나도 즐거웠던 모양입니다. 물총을 들고 신나서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는 모습에 부모님들도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개인이 가족으로 또 그 가족들이 모여서 주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교회에서 모여 먹고 마시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작년에 이어 중국어권 예배부와 그리고 처음으로 함께 한 러시아권 예배부가 있어서 축제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중국어권 예배부와 중국교포선교회가 함께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중국어권예배부에서는 불고기, 돼지불고기, 건두부냉채 그리고 여러 가지 야채와 닭발조림 등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닭발요리는 좋아하는 분과 아닌 분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음식으로 영어권 형제자매들이 와서 기겁했던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폐회예배 때 김도현목사님께서 글로벌한 오늘의 모임의 모든 순서와 음식은 너무 좋았지만 그중에 닭발은 도저히 시도할 엄두가 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셔서 모두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교포선교회가 중국어권예배부의 설립부터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하게 되어서 한어부 예배부와 중국어권 예배부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통역부에서 섬겼던 저는 이번에도 부족하지만 또 게임을 진행하는 MC 이정훈 집사님의 "통역사"로 나서서 함께 호흡을 맞췄습니다. 처음으로 두 가지 언어로 게임진행을 시도하여 조금은 걱정이 되었으나 시작을 알리는 목 풀기와 몸풀기 운동에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흥분된 모습을 보니 그 걱정은 온데 간데 없이 저도 함께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정훈집사님께서 게임규칙과 순서를 얘기하면 저는 중국어로 중국어 회중들에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속도가 느릴 것 같고 뭔가 답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전혀 언어의 장벽을 느끼지 못하고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게임 순서순서에 임하는 중국어 회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는 감동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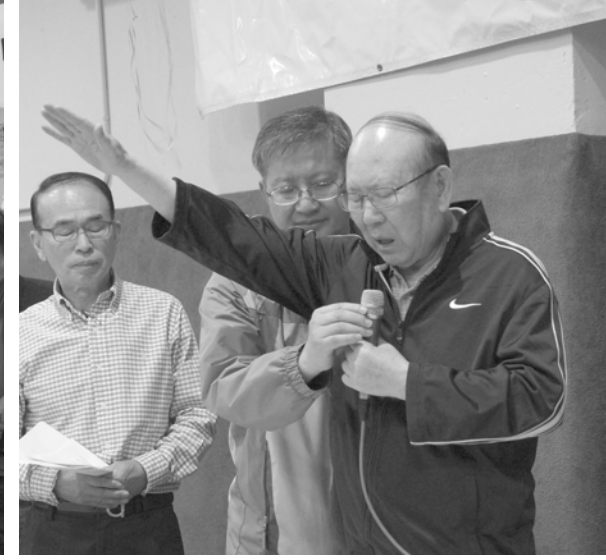
이렇게 중국어권예배를 설립하고 이 형제자매들을 포용한 우리 퀸즈장로교회가 얼마나 대단하고 자랑스러운지 다시한번 깨닫기도 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던 중, 그 전날 처음으로 설립예배를 드렸던 러시아 회중들의 참여를 돕기 위하여 송요한목사님께서도 러시아어 통역사로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이정훈집사님이 한국어로 얘기하면 저는 중국어로, 송요한목사님은 러시아어로 통역했습니다. 그야말로 올림픽대회 못지않은 열기와 열정을 자랑했던 우리 한마음축제 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경품권 추첨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들 기대에 부풀 마음으로 추첨되기를 바라며 아쉬움과 기쁨의 환호를 하며 부서와 나이와 말하는 언어와 상관없이 번호대로 추첨하여 경품을 고루고루 나눠가지고 모두모두 기쁘고 신났던 하루입니다.

마지막으로 QPEM을 섬기고 계신 김도현목사님께서 말씀으로 폐회예배를 드렸습니다. 김도현목사님께서 영어로 얘기하시면 첸위지전도사님께서 중국어로, 그 다음에는 박성권전도사님께서 한국어로, 마지막으로 송요한목사님께서 러시아로 통역하며 말씀을 마쳤습니다.

4개의 다른 언어로 드리는 예배, 이런 근사하고 멋있는 예배를 우리 퀸즈장로교회에서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뿌듯하고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세계선교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담임김성국 목사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플러싱에 사는 이유

이제 플러싱은 한인들이 새롭게 이주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 둘 떠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플러싱에 있습니다. 교회도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아니면 좀 더 쾌적한 곳으로 이사 갈 수 있겠지만 아직 우리가 복잡한 플러싱에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부족하지만 퀸즈장로교회가 이곳에서 여전히 한인 성도들의 버팀목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날, 낯선 미국 땅에 도착한 많은 한인들이 그 이민 생활의 첫발을 시작한 곳이 플러싱입니다. 거주지가 꼭 플러싱은 아니어도 삶에 지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한인들이 퀸즈장로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인들 누구든지 새로 오기에 편하고, 계속 오기에 익숙하고, 다시 오기에 고향 같도록 이 자리에 있으려 합니다.

우리가 플러싱을 떠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다민족이 함께 어우러진 예수 공동체, 진정한 교회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플러싱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이 사는 곳입니다. 자기 민족만 잘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일까요? 아닙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계7:9-10).” 마침내 완성될 천상의 다민족 공동체를 지상에서 우리 교회가 그 모습을 앞서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크신 은혜 가운데 러시아어권 설립예배가 드려지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시작케 하신 주님이 그 날까지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일은 또 전교인 한마음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한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회중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서로 돌아볼 날입니다. 다민족 공동체에는 언어, 문화, 관습 등의 차이는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주님을 섬기기에 다양성 속에 하나 됨이라는 성경적 역동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버거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인 성도들이 기댈 곳,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이 한마음으로 어울릴 곳으로 이 시대의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우리 퀸즈장로교회는 여전히 플러싱에 있습니다.

The Reason Why We Still Live in Flushing

If you look around Flushing, Queens today, it is no longer the same place it once was. Flushing was once a vibrant hub of Korean immigration, with waves and waves of new immigrants coming regularly. However, Flushing is no longer a place where new Korean immigrants come these days, rather it is has become a neighborhood where Korean residents have been leaving, one-by-one. Our church,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KAPCQ) is located in such a place. There are many who say that it would be better for our church to move to a more suitable neighborhood, one where there are more Koreans. While, many of these comments hold truth to them, there are many reasons as to why we are choosing to remain here, in this neighborhood.

First,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still needs to be a place of support, and community for all Korean immigrants who still remain in this area. This neighborhood of Flushing, in the past was once a starting place for many Korean American immigrants. Even Korean Americans from beyond our neighborhood of Flushing would come together, and gather at our church, to worship, to evangelize, and to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our church has served as a center for the Korean American immigrant community since its beginning, and remains that way even to this day. It is our desire, that our church would remain here in Flushing as a place where all those who have left their homes in Korea, and seeking a new one in America, might find a community, and a place that they would feel at home.

Another reason that we are not leaving Flushing, is because we are hoping to become a multicultural church. A church that truly reflects the nature of our Lord Jesus and the gospel work that he has wrought. Flushing remains one of the most diverse neighborhoods in the world, and we hope for our church to be a reflection of that. Would God be happy if ethnic groups remained exclusively isolated from one another? Sticking only to one another with a tribalistic mentality? It is our conviction that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s, “no.”

Scripture paints a picture for what the true, and perfect church will look like, after the Lord returns and restores this broken world. “After this I looked, and behold, a great multitude that no one could number, from every nation, from all tribes and peoples and languages, standing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Lamb, clothed in white robes, with palm branches in their hands, and crying out with a loud voice, ‘Salvation belongs to our God who sits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Revelation 7:9-10; ESV) The heavenly community, is not one of tribalistic isolation, but a community of multiculturalism that celebrates the Lord, united in their worship of him. If our church can reflect this multicultural heavenly community, how much joy would that bring to the Lord’s heart?

Today, is a historic day for our church. We are inaugurating the beginning of our Russian speaking congregation. By God’s mysterious design, and deep grace, our Korean church, today, is having a planting service for a Russian speaking congregation. It is my belief that He who began a good work will bring it to completion. In addition to our service today, we have a Memorial Day picnic tomorrow. All our different ministries in our church, our Korean ministry, our English ministry, our Chinese ministry, and our Russian Speaking Congregation will gather together, to find, fellowship, and celebrate our unity in Christ. Members of our multicultural church community differ from one another in language, culture, and custom, but we serve one Lord, in one spirit, with one faith. It is here that we find unity in our diversity, and we believe that this unity in the midst of diversity, is a biblical dynamic.

A place where burdened Korean American Immigrants can receive support, and a place where the diverse members of our community can be united and have fellowship with one heart. We,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hope to be those who cultivate this soil of Christ’s community, here in our neighborhood of Flushing, Queens.

异象宣言

我们生活在法拉盛的理由：

现今的法拉盛不再只是韩国新移民聚集居住的地方，而是聚集了更多的民族。我们的教会就存在于这样的社区——法拉盛。相信有很多很好的地方，有好的教会供韩裔民族居住。但是今天我们依然选择生活在这热闹的法拉盛社区是有理由的。

第一个理由是因为在这繁闹的社区，有十年如一日坚持不断牧养韩裔信徒的韩中长老教会。过去的日子里，每一个新的韩裔移民踏上移民之路，首先会选择在法拉盛开始新生活。每一个刚来美国的新移民，带着疲惫的身心和对未来的各种不确定，可以在我们的韩中长老教会，圣徒聚集在一起自由的敬拜‘学习’宣教‘传道’相交‘直到今天。希望在未来，我们愿意迎接更多新的移民，我们也将坚守在这个地方。

我们在这里的第二个理由是因为我们希望成为一间多元化的教会，一个真实反映我主基督本质和福音事工的教会。法拉盛是世界上最多元化的一个社区。我们也希望我们的教会也能够反映出这一点。如果只是独立民族，单个民族在这里敬拜主，神会喜悦吗？不会的。

此後，我觀看，見有許多的人，沒有人能數過來，是從各國、各族、各民、各方來的，站在寶座和羔羊面前，身穿白衣，手拿棕樹枝，

大聲喊著說：願救恩歸與坐在寶座上我們的神，也歸與羔羊！

(启示录7：9-10)

自从主耶稣回来重建这个破碎的世界，圣经画出了一幅真实、完美的教会图案。属天的教会非孤立的，而是在敬拜里欢庆主的多文化教会。如果我们教会能反映这样一个多文化的属天教会，那主的心该会多满足啊！

我们在地上，万国万民聚集在一起，就好像在天上聚集在一起一样，我们在天上的父一定会特别的喜悦。今天因着神的伟大计划和最大的恩惠，我们将迎来俄罗斯崇拜建立的历史性时刻，我相信使我们开始的神将会完成这事，直到主再来为止。明天又是一个全教友一条心庆典的日子，韩文部，英文部，中文部，俄罗斯部会众互相相交的一天。我们作为多民族共同体，语言，文化等有所不同，但因着同一个圣灵，用同一个信心，去敬拜、赞美、事奉同一位神。这一切都是符合圣经上神的教导的。

韩中长老教会会一如既往的成为移民者可以信赖依靠的地方，成为多民族能在这艰难的世代里，同心协力，作耶稣基督共同体的地方。这就是我们韩中长老教会存在法拉盛社区的理由。

Почему мы живем во Флашинге.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корейцы, все больше не приезжают, а покидают Флашинг. Наша церковь расположена в этом районе. Церковь могла бы тоже переехать туда, где больше живет корейцев, или в лучшее место. Тогда почему же мы продолжаем находиться во Флашинге?

Первая причина в том, что пускай не совершенно, но мы продолжаем быть опорой для корейцев живущих в этом районе. В прошлом многие корейцы начинали, свою нелегкую жизнь иммигрантов именно во Флашинге. Даже если они жили и не во Флашинге, наша церковь стала для многих местом собраний и служений, учебы и совершения миссии, удобным и привычным, "маленькая родина". Поэтому мы хотели бы быть здесь и дальше

Не покидаем мы Флашинг и потому что надеемся, что мы станем общиной Иисуса для всех народов. Флашинг это место где компактно проживают люди со всего мира. Нравится ли Богу если в нашем собрании будут тольк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дной нации? Нет. В Откровении 7:9-10 сказано: "После сего взглянул я, и вот, великое множество людей, которого никто не мог перечесать, из всех племен и колен, и народов и языков, стояло пред престолом и пред Агнцем в белых одеждах и с пальмовыми ветвями в руках своих. И восклицали громким голосом, говоря: спасение Богу нашему, сидящему на престоле, и Агнцу!" Если мы то, что случится на небесах, сможем увидеть здесь на земле. Как от этого будет радостно Богу?

Сегодня исторический день, день радостный для Бога, открытие русскоязычного служения. От самого начала, до сегодня дня, это только заслуга Господа. Корейское, Английское, Китайское, Русскоязычное собрание мы собрались и все вместе можем служить вместе. В мульти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есть, языковые, культурные, традиционные различия, но во Святом Духе, одной верой, служа одному Господу, есть парадоксальное событие, в различиях единство!

Да возможно жизнь, все та же тяжелая жизнь иммигрантов. Но церковь на которую могут положиться разные народы, где могут стать одним целым, прекрасным собранием последователей Иисуса, в наше время. Это ли не великая милость Бога. И поэтому мы как церковь, продолжаем оставаться во Флашинге!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русскоязычного служения
러시아어권 설립예배 2016년 5월 29일 오후 4시
29 мая 2016 года

러시아어권 예배

2016년 5월 29일 오후 4시에 우리 교회 역사에 크게 기록될 퀸즈장로교회 러시아어권 설립예배를 많은 러시아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렸다. 러시아어권 예배부의 부장인 윤지현집사의 사회로 진행된 설립예배는 김성국 담임 목사님의 환영사에 이어 예배선언과 경배와 찬양의 찬양 순서를 가졌다. 레오니드 김 목사님(브루클린 올네이션스 교회 담임)의 기도와 필다우스오비도프 형제의 성경봉독과 찬양대 찬양이 있던 후 송요한 목사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16:15-19)'란 제목으로 설교하셨다. 설교 후 블레싱콰이어의 특송과 양춘호목사(올네이션스교회 담임)님의 축사와 정길표장로님의 광고, 그리고 김성국목사님과 영어권 김도현목사님 그리고 중국어권 첸위지 전도사님과 러시아어권 송요한 목사님의 비전나눔의 선포식을 가진 후 김성국목사님의 축사로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5-19)

송요한목사

오늘 러시아어권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뜻깊은 날이라 생각한다. 퀸즈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당회원들과 김성국 담임목사님, 브루클린 올네이션스교회 성도님들과 레오니드 김 담임목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한국어로 설교하는 것은 언제나 저를 긴장시킨다. 그러나 오늘 그렇게 바라던 러시아어로 설교를 하는데 더 떨리는 이유는 제가 이 목적 때문에 뉴욕으로 왔는데도 이 일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개월 전부터 러시아어 교회 첫 예배 때 우리가 어떤 모임이 되어야 할지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대로 되기를 소원한다.

본문 18절에, 예수님은 자기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 하신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

1.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이 자기 말씀대로, 능력으로 세우는 것으로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로 우리는 이 교회의 성도인 것이다. 큰 의미로는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인 것이다.

교회는 무엇인가? 헬라어 ἐκκλησία 뜻은 선택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 축구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나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을 교회라 한다.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진 곳이 예수님의 교회이다. 오늘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여기 기쁨을 나누려 함께 계시지만 제가 원하는 것이 이 러시아어권 사역과 또한 이 모임에 진정한 주인은 목사님들도, 형제 자매님들도, 또한 저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시기를 소원한다.



교회에 닥치는 큰 어려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내가 새운 교회인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하며 우리 자신이 세운 교회로 생각을 할 때 온다.

어느 미국 남부의 백인우월주의가 심한 도시에 한 흑인 남자가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로 못 들어오게 했다. 그가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주님, 제가 교회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어떻게 자리가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할 때 어디선가 “야야 이 교회에서는 나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네가 들어갈 자리가 있겠니?”라며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곳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다.

2.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 교회사의 해석을 보면 천주교에서 반석은 바로 베드로 자신을 가리킨다고 어떤 교회는 그냥 상징적으로 사람 위에 세운다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위에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른 믿음을 위해 세우는 교회를 말한 것을 안다. 바른 믿음은 본문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다. 즉, 교회의 본질을 가르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적인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 믿음은 우리의 기초이자 본질이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의 교회

가 될 것이다. 교회는 여러 모양과 형태로 문화의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또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도 가능할 것이나 핵심 그 변하지 않아야 할 본질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에 나온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시니이다.”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으로 고백조차도 다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만약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은 고집쟁이로 보일 수 있다. 그래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 바울은 고전 1:23-24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은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다.

3.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이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주님의 교회를 향해 이 땅의 음부의 권세가 늘 공격 한다는 말이다. 교회가 세워지면, 이를 싫어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평안하게 있을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할 것을 알려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러시아어로 이러한 말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만한 여행을 약속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평안한 항구를 약속 하셨다.’ 이 뜻



은 곧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있을 동안에 늘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말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속하면, 싸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싸움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다. 이 세상에는 많은 권세들이 있다. 그 동안 다른 종교, 문자, 공산주의 사상에 사로잡힌 러시아어권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오늘 우리 모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고 있다.

엡 6: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에게 이 싸움이 있다.

또 하나의 싸움의 영역은 바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영혼들로 이 영혼들은 지금은 음부의 권세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역으로 이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가 되게한다. 그때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한다.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의 사실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승리를 선포할 것이라 하신 것이다.

초대 교회에서 로마 제국의 칼과 사자 굴과 불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했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과 복음으로 로마를 이긴 것을 볼 수 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러시아어권 예배가 주님의 복음으로 늘 승리하기를 축원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한 기쁨의 잔치

편집부

은 교우들이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하여 기도하며 준비한 선교 바자의 날에 좋은 날씨까지 허락해 주시니 감사가 넘칩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자 곧 지하 친교실과 본당 앞 주차장이 여러 가지 준비로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오전 8시 30분에 개회 예배를 드린 후에 모든 선교회와 교육부, 영어 예배부, 중국어 예배부, 러시아어 예배부 회중들이 일제히 힘을 합하여 선교 바자의 막을 열었습니다.

본당 바로 앞 제일 눈에 띄는 자리에 바울선교회가 자리잡고 각종 Hair products를 염가에 판매해서 여자 손님들이 모여 들었고, 그 옆에는 가장 연세가 높으신 아브라함 선교회에서 파는 알로에 화분, 상추화분, 과일 등이 보였으며, 바로 곁에는 아론선교회에서 각종 장난감과 가방, 알록달록한 색깔의 매니큐어를 진열해 놓아 눈길을 모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맛있는 냄새가 피어나는데 루디아 선교회원들이 뜨거운 불 앞에서 각종 맛있는 모듬 튀김을 튀겨내고 있습니다. 초여름의 무더위와 뜨거운 불보다 더 강렬한 선교회원들의 주님 향한 사랑이 엿보입니다. 그 옆에는 영어 예배 회중들이 시원한 음료수와 쿠키, 컵케익을 판매하면서 땀 흘리며 일하는 어머니 빨 되는 루디아 선교회원들에게 직접 갈아 만든 과일 스무디를 선사해서 갈증을 풀어 주었고, 덕분에 고소한 튀김도 덤으로 받아 맛보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선교부에선 수북이 쌓여 있는 새 옷 같은 헌옷들과 신발을 판매했으며, 초등부에서도 학부형들과 교사들이 기부한 여러 종류의 책들, 인형과 옷을 싼 가격에 팔고 있었으며, 그 앞에서는 뽕뽕 선교회에서 세련된 상차림의 돈까스를 열심히 만들었고, 고등부 학생들은 호떡과 팬케익, 아이스크림을, 여호수아 선교회에서는 금년에 처음 선보이는 달콤한 솜사탕과 각종 유명 브랜드 지갑을 좋은 가격에 판매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베드로 선교회에서 선보이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봉어빵을 만들어서 팔고, 각종 싱싱한 과일과 독특한 디저트로 입맛을 돋웁니다. 디모데, 에스더 선교회에서는 고급 가방을 염가에 판매했고, 다비다선교회에서 주얼리와 머리핀, 악세사리를 예쁘게 진열했습니다. 어디선지 조금 색다른 냄새가 나서 가보니 와! 바로 지난 주일에 설립예배를 드린 러시아어 예배부에서 양고기와 양꼬치 바베큐를 송목사님이 직접 구워서 판매하는데 굶기가 무섭게 동이 납니다.

이 때다 싶게 주차장 한가운데에는 전도 폭발 Booth가 마련되었고 영어예배부의 흥정택 집사가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기회 되는대로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당으로 출입문 통로에 잘생긴 청년들이 바닥에 앉아 열심히 구두를 닦고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니 각종 아름다운 난과 선인장이 운치 있게 진열되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본당 강대를 늘 멋진 난으로 매번 새롭고 아름답게 장식해주어 성도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이동수집사님이 올해에도 기부하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집사님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 건너편에는 모세선교회의 김용생장로님이 직접 만드신 성경 읽을 때 꼭 필요한 목재 독서대와 건강보조기 등이 진열되어 있고, 친교실로 향하는 양쪽 벽에 붙여놓은 기발한 문구와 위트로 식욕을 자극하는 메뉴 광고지를 따라 계단을 내려니 그야말로 먹을거리가 가득합니다.

마르다 선교회의 영양 많고 맛있는 정성스러운 비빔밥, 브리스가 선교회의 시원한 국물의 우동과 건강식 월남 찜, 청년3부에서는 오뎅과 과일 샐러드를, 청년2부에서는 프로 수준급의 매콤하고 맛있는 떡볶이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주방 앞 코너에 청년1부가 각종음료와 아이스크림 등을 준비하고 기도의 어머니 성함을 따서 지은 '명자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비다 선교회에서 군침 도는 녹두 빈대떡을, 그 옆에서 한나 선교회원들은 달콤한 찹쌀 부꾸미, 중국어 예배부의 군만두와 마리아 선교회의 각종 김밥도 입맛을 돋워 줍니다.

그 곁에는 안나 선교회원들이 각종 떡과 갈숨의 왕 멸치, 각종 해조류, 사라 선교회에서 준비한 된장, 고추장과 배추김치, 열무김치가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친교실 뒤편에선 다비다 선교회에서 고급의류와 건강식품, 선물용품을 판매했으며, 강대 앞에는 박순자권사님의 아름다운 수채화 작품이 전시되어 마음을 편안하게 녹여줍니다. 그리고 얼굴이 더 예뻐지는 희소식! 바로 브리스가 선교회의 점과 잡티빼기도 성황입니다.

이때 주차장에서의 깜짝 위로부대의 특별공연! 오목사님의 기타반주에 맞추어 찬양하시는 담임목사님과 사모님의 격의 없는 모습에 함께 흥겨운 춤과 노래로 박수치며 웃다보니 순간에 바자는 축제의 장이 됩니다.

어느덧 사랑과 정성과 즐거움이 풍성한 일일 시장 선교 바자가 저녁 7시에 폐회예배를 드리며 막을 내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6년 단기 선교를 위한 오늘 바자회 수익금이 7만 여불이라는 보고를 받으며 그 풍성한 수확에 서로를 축하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들의 작은 희생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온 세상을 품고 기도와 사랑과 희생과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멋진 우리 성도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 해 주는 고리 같아요

라티몰 훈 어머니—라티몰 영미집사

어버이주일 저녁예배에 저의 아들 훈이가 소속된 어린이 합창단 G2G와 엄마들이 함께 특별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녀가 찬양을 드리는 것도 감사한데, 엄마들과 함께 함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차에서나 집에서 함께 연습 할 때, 훈이에게 감동이 없는 것 같아 영어로 설명해주 었더니 더욱 열심히 연습하였습니다. 가사에 감명을 받았는지 "엄~마~ 사랑해요 ~" 하며 나에게 하트를 보내주곤 하였습니다.

훈이가 잘 따라하지 못해 지도하시는 선생님을 힘들게 할까봐 조금 염려하였지만 의젓하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통하여 저희 가족의 믿음의 뿌리가 더 든든하여 지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찬양이 끝난 후 엄마와 찬양하는 것이 어떠했나 묻는 나에게 "엄~마! 찬양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고리인 것 같아요. 나는 찬양하는 것이 정말 행복해!" 라며 기뻐서 계속 찬양을 흥얼거리고 다닙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깨끗한 영혼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돌봐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은 엄마와 같이 교회에 오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아이로 자라길 기도합니다.



찬양을 통해 배우는 구별된 삶

송지수 어머니—송미진집사

저에게 지수는 4번째 막내딸입니다. 네 아이가 모두 우리교회에서 태어나 영아부 부터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며 예배자로 자라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부모의 바람처럼 쉽지 않을 때가 많지만, 어릴 때부터 배운 말씀과 기도 그리고 늘 함께한 찬양을 통하여, 악하고 험한 세상사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것 같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희 교회 교육부 찬양대는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부모님들께 아이들을 찬양대에 조인시킬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교회에서의 활동은 학교 생활에서도 발표에 도움과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귀함을 알기에 G2G에 지수도 조인하게 되었고, 이번 어머니 주일 찬양을 함께 하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함께 눈물 흘리는 정말 감명 깊은 시간 이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이였습니다.

G2G를 위해 늘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쉬지않고 연습하도록 기도해 주시는 부장님, 그리고 매 주일 연습시간과 여러 가지 공고문을 올려주시는 단장님, 그리고 권사님을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G2G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믿음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 나길 소망하며, G2G의 부흥을 위해 늘 기도 하겠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가져온 G2G

심영준 어린이 어머니—심원희 집사

아이들과 함께 드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였습니다. 우리 영준이는 영아부에서 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자라 교회오기를 기뻐하며, 예배드리며 찬양하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G2G를 통하여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의 모습을 통해 엄마인 저도 많이 기도 하게 되며,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질문도 정성껏 답해주시는 이현승 단장님, 기도하시며 사랑과 열정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 지휘로 수고하시는 채현주 권사님의 헌신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헌신을 통해 우리 영준이는 집에서도 항상 찬송을 흥얼거립니다.

그걸 지켜보고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영준이 아빠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영준이의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G2G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아이들을 더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 G2G 찬양 예배

이효리, 유리 어린이 어머니

푸름 속에 푸름.. 5월,6월은 참 덥기도 하지만 열정적이기도 하고 감사할 일들과 행사들로 가득 찬 풍성한 달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5월 8일 어버이 날' 찬양 예배는 각 부서마다 준비한 귀한 찬양들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였습니다. 이번 에 우리 교회 어린이 합창단 G2G (Glory to God)의 찬양 순서도 있었고 아이들 어머니들도 아이들과 함께 찬양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저도 두 딸이 찬양대에 있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찬양을 아이들과 함께 부르며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맺어주시는 부모와 자녀들 간의 사랑을 서로 고백하며 깨닫는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였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이제는 많이 나이드신 부모님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껏 자식들 위해 한 평생을 희생하시며 사랑과 눈물로...부족한 삶 가운데에서도 그나마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먼저 내밀어 주셨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이제는 잘 좀 보살펴 드려야지...눈시울이 뜨거워지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예쁜 찬양을 아이들과 함께 부르면서 좋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이쁜 우리 엄마~ 엄마 사랑해요~) 정직한 고백을 듣기도 했지만..엄마도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자랑스러워 하는지..그 마음을 아이들에게 찬양으로 들려주고 함께 격려할 수 있었기에 너무 흐뭇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한 우리를 돌아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까지 삼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에 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찬양 속 그 고백을 통해 위로 받을 자에게는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새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솔직한 심정을 매일 찬양과 함께 주께 올리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母亲节教会

어머니날야유회를다녀오며

麦子Grace Xiang

得知5月8日母亲节中文部组织郊外聚餐,这是我第一次参加教会的活动,有一种回到孩提时代的兴奋心情,盼望母亲节赶快到来,陈传道还让我们夫妇在当天有个见证分享°

5월8일 mother's day에 교회 중국어예배부에서 성도들이 함께 파크로 나들이를 간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교회활동에 참가하게 된 저는 어린애마냥 들뜬 기분으로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첸전도사님께서서는 또 그날에 저희부부의 간증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해주셨습니다.

回想起我到韩中长老教会是从40天晨祷开始,每次晨祷结束在楼下用早餐时我们围坐着陈传道,他都会跟弟兄姐妹一起分享圣经,用经文来解答我们提的各种问题,觉得这位传道的信仰根基很纯正,扎根在圣经上,使我又开始渴慕神的话语恢复了灵修°那段时间我和我先生的相处碰到了极大的难处,每天流泪在主耶稣面前祷告,但仍然觉得我走不下去°

제가 처음 퀸즈장로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사순절 새벽기도 때부터였습니다. 매일 새벽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첸전도사님을 둘러앉아 아침식사를 하면서 교제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도사님께서서는 여러 형제자매들과 함께 성경말씀을 나누고 또 그 성경구절들로 우리의 여러가지 질문들을 대답해주셨습니다. 그런 교

제 가운데서 전도사님의 순수하고 견고한 믿음을 엿볼 수 있었고 또 말씀 위에 굳게 서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매일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시기의 저는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매일 눈물로 주님앞에 무릎꿇고 기도했지만 도저히 헤쳐 나갈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有一天鼓起勇气请陈传道为我婚姻祷告,他耐心教导我如何做一个合神心意的妻子时才发现我有太多不够好的地方,当陈传道为我祷告的时候就感觉神的爱和同在厚厚地浇灌到我的身上,好像把我所有缠累都脱去了,全身轻松°从那天后我就开始来到教会参加主日了°

그러던 어느 하루 저는 큰용기를 내어 전도사님께 제 결혼생활에 대해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전도사님께서서는 그런 저의 상황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내가 될 수 있음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뜨겁게 저에게 부어져 그 동안 저를 누르고 있던 알 수 없는 짐을 모두 벗겨 주신듯 온몸이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교회로 와서 주일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感谢主带我来到韩中长老教会真是很大的得着°母亲节是主日,早上出门的时候天空还飘着密集细雨还担心天气会影响活动°聚会时陈传道为天气祷告,感谢主耶稣垂听我们的祷告使雨停了,当我们出发的时候天空一片晴朗,阳光明媚°驱车来到了长岛的公园,整个公园非常的漂亮,不远处还有一大片湖,湖水清澈见底,不由地从心底向神发出赞美,创造了美丽的景色让人欣赏°也许是早上下雨的缘故,公园里面除了我们,几乎没有其他的人,主给我们预备了最好的地方°每个人都动手帮忙做事,把各自用爱心做的菜肴摆到长长的桌子上,其乐融融,就像一家人一样,不管从年纪长的到小朋友,都开心的有说有笑,在做游戏的时候,我们相互交流,加深了和弟兄姐妹的情感,“看那,弟兄和睦同居,是何等的善,何等的美。”大家还拍了很多照片留念,实在是美好的一天°

저를 퀸즈장로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큰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만 하여도 이슬비가 내려서 우리의 일정에 영향을 끼칠까 걱정을 했었는데 전도사님께서서는 날씨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출발할 시기에는 비가 그쳐서 하늘도 푸르고 맑아지고 햇살도 따스하게 비췄습니다. 차를 타고 도착한 롱아이랜드의 파크는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파크 가까이에는 큰 호수가 있었는데 호수물도 아주 맑고 깨끗했습니다. 마음 속에서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비가 왔던 이유였던지 공원에는 저희 일행을 빼고는 거의 다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저희에게 정말로 제일 좋은 장소를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모두들 빠른 손놀림으로 집에서 준비해 온 갖가지 맛있는 음식들로 긴 테이블에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족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준비하며 어른이나 아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교제했습니다. 게임을 할 때 우리는 서로 교감하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보라 형제가 화목하니 실로 선하고 아름답도다” 우리는 또 사진도 많이 찍어서 이 시간을 기념했습니다.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TLW 교육과 서약예식을 지켜보며

유영선 집사 (중등부 노승민 어머니)

어느새 훌쩍 자라서 눈높이가 맞지 않아 올려다 봐야하는 사춘기 아이를 키우면서 세상의 혼돈된 가치 속에 어떻게 아이를 말씀 안에서 특히, 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할지 힘든 숙제처럼 늘 부담스러웠던 중에 TLW세미나교육(중등부 순결예식 TLW-True Love Waits Seminar and Purity Ceremony)등록 내용을 받고서 너무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5주간 진행된 교육을 지켜보며 서약예식을 위해 정장을 주문하는 등 이 모든 과정이 아들을 위한 행사준비라 생각했었습니다. 예식을 위해 금식을 해야 한다는 아들 덕분에 금요일 한끼 금식을 함께하며 서약예식을 참석하던 날 순결서약은 아이만의 서약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약예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남편에 대한 사랑의 서약을 뒤돌아보며 주 앞에 설 때 까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며 그렇게도 원하시는 성결된 삶을 살기로 새롭게 서약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귀한시간이었습니다.

성경대로 성교육을 받을 수있는 아름다운 교육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교회와 박전도사님 가정 그리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준, 윤서와 드리는 가정 예배

Betsy Jang (유아부 장예준, 윤서 어머니)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갓난아이를 데리고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서 드리고 싶었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계획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거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 할 수 있을까? 장난감이 있어도 한자리에 얼마 못 있는 윤서가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동안에 가만히 앉아 있게 할 수 있을까?” 마음으로는 이미 영망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생후 몇 개월 되지 않은 어린 윤서가 울면, 아직 어린 예준 이도 따라서 울고 불며 장난감을 가지러 가거나, 우리는 우는 예준 이를 쫓아다닐 거라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염려들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예배드리기에는 애들이 너무 어리고, 상황도 힘들고 어렵고, 어차피 예배드릴 시간도 없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심코 예준이와 윤서를 봤을 때,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버리는지, 그리고 그 지나가버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들인지 깨달았습니다. 예준이가 점점 세상에 대해 알아가면서, 특히 가정에서 하나님 중심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가정에 맞는 가정 예배 형식을 구굴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몇 분만이라도 아이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들과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잠자리에 드는 일상적인 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목욕을 하기 위해 위층에 올라가기 전에, 예준이가 오랜 된 아이폰에서 좋아하는 찬 양곡을 골라 찬양하고 바로 짧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예준이에게 어린이 성경을 읽어주며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아빠는 “넘기면서 읽는 성경책”을 윤서에게 읽어줍니다.

다. 넘기면서 읽는 성경책은 윤서가 성경책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성경을 읽고나면, 예준이가 기도문책에서 기도를 선택하고 엄마와 함께 기도문을 읽어줍니다. 아빠는 “Baby’s First Book of Prayers”에서 기도문을 골라서 윤서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후에는 찬양에 맞춰 울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예준이가 좋아하는 찬양을 한국 더 선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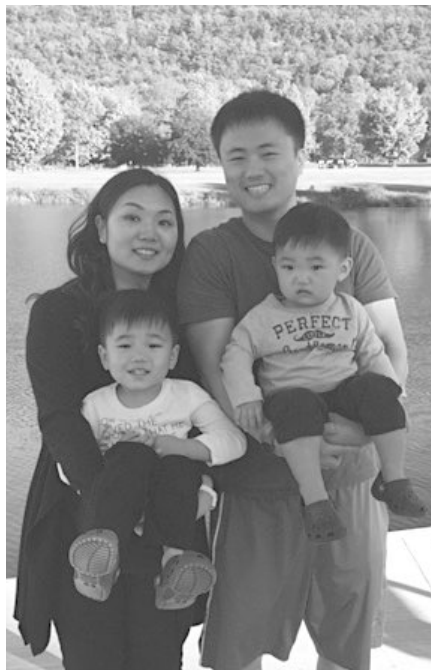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송으로 가정 예배를 끝냅니다.

처음에는 가정예배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비록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의 예배였지만, 아이들이 집중하거나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애가 도망가거나, 둘째 아기가 기어서 가버리면, 남편과 저만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고 예배를 계속 드리게 했던 한 가지는 Good night 이라고 말하며 잠자리에 들기전에, 그래도 아이들이 우리 무릎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가며 가정 예배가 일상적인 부분이 되었고, 아이들이 바로 앉을 수 있고, 실제로 예배에 참여하며, 찬양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집중하며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있지만,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삶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가에 대해 듣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예배가 주일뿐 아니라 매일, 교회와 가정과,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의 기초를 세우고, 지탱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지민이의 유아부 예배!

이복임 집사 (유아부 이지민 어머니)

유아부로 올라가 처음 지민이가 예배드린 날이 생각합니다.

“엄마 오늘은 무슨 날이야?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야?” 아침부터 지민이는 분주한 나에게 자꾸 묻습니다. “그럼 오늘 아빠, 엄마, 누나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라고 말했더니 “난 교회 가기 싫는데” 하면서 자꾸만 보챱니다. “왜? 왜 가기 싫은데?” 하고 묻는 나에게 지민이는 자꾸 무엇을 자기에게 시키는 게 싫다고 그러합니다. 그럼 엄마가 선생님께 “오늘은 지민이에게 아무 것도 시키지 말아 주세요.” 라고 달래도 내심 뭔가가 걱정이 되는지 자꾸만 찡찡 거립니다. 결국 혼낸다는 한마디에 지민인 포기한 듯이 “알았어” 라고 대꾸하면서도 “그럼 꼭 오늘 나 아무것도 안한다고 얘기해야 해” 라고 재차 확인하며 누나한테 가서 화풀이 겸 장난칩니다.

영아부에서 갓 올라와서 엄마랑 떨어지기 싫다고 울던 아이 때문에 뒤에서 아이와 선생님의 눈치를 보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게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유아부를 떠나 유치부로 가야할 나이가 된 지민이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젠 저에게 손을 흔들고 웃으며 혼자서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 동안 유아부 선생님들의 수고에 절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유아부는 교회 학교 부서에서 가장 힘든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인 듯합니다. 처음으로 부모님과 잠시 헤어져 혼자 예배를 드려야하는 때로는 우는 아이들을 안고 달래며 그 빈 공간을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부모님들의 심장을 가지고 잘 보살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매주일 말씀 속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시어 만나게 하시고 백지 같은 아이들의 맘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심어 주십니다. 크리스마스의 아기 예수님을, 부활절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물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을, 어린 아이의 물고기 두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욱 주일 유아부 예배 시간이 지민이겐 가장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으로 후에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어린 지민이가 매 주일 하나님께 소중히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바른 예배자들로 쑥쑥 자랄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유아부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교회를 향하여..

1교구장 함미희 전도사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라는 제목의 시편 122편의 다윗의 시의 첫 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번 대 심방 기간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뉴저지 연합 대 심방예배에 주신 말씀입니다. 뉴저지 전 지역을 다 심방하지 못하였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각 가정의 기도제목을 위하여 한 가정씩 밤이 늦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1교구는 지역의 특징이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과 가장 먼 뉴저지, 브롱스, 브루클린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교구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새벽 기도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분들이 1교구 성도님들이시며 또한 가장 늦거나 오시기 힘든 분들도 1교구 성도님들이십니다. 대심방을 하면서 가장 감동이 되는 부분이 바로 가장 멀리서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을 심방할 때입니다. 수요일예배나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 오시기 힘들어서 오직 주일을 목숨처럼 기다리시며 살아가시는 분들을 만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다윗처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라는 말씀을 내가 직접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교회에서 멀리 이사를 가셨지만 그들의 심령만은 주님의 집, 퀸즈장로교회를 그리워하며 한 주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주일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마치 한 주일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주일인것처럼..

교회가 멀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전만큼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까워도 나오기 힘든 성도님들이 많은 것도 1교구의 특징입니다. 노인 아파트가 많은 키세나 블러버드에서 몇 블락 떨어지지 않은 교회도 못나오시며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지팡이에 의지하여 주일에 한번 나오시면서 로비에 들어서시는 모습은 천국에 들어 오시는 모습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전에 올라갈때 다윗이 기뻐했던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멀리서.. 가까이서..

하나님의 집, 퀸즈장로교회를 향하여 오시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